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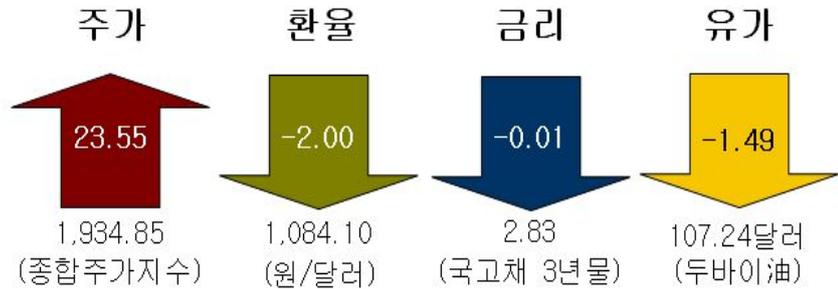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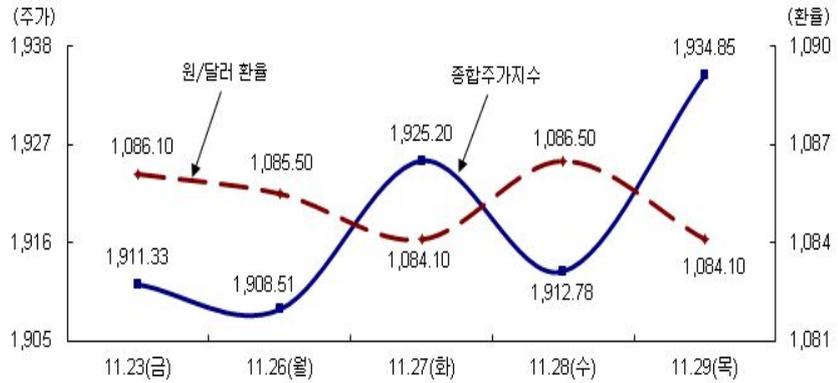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2000년대 세계무역구조 변화의 10대 특징
- 신흥개도국, 서비스, 산업재가 대세다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11.23~11.29)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2000년대 세계무역구조 변화의 10대 특징	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17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괄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2072-6210, bkyoo@hri.co.kr)
 □ 작성 : 김 광 석 선임 연구원 (2072-6215, gskim@hri.co.kr)

Executive Summary

□ 2000년대 세계무역구조 변화의 10대 특징

■ 2000년 이후 세계교역 추이

세계교역규모는 2000년 16조 달러에서 2011년 45조 달러로, 연평균증가율 9.8%로 견조하게 성장해 왔다. 2000년 최대교역국이었던 미국은 점차 영향력이 떨어진 반면 7위국이었던 중국은 2011년 세계교역의 10.7%를 차지하면서 최대교역국으로 부상하였다.

■ 세계무역구조 변화의 10대 특징

2000년대 세계무역구조의 변화를 살펴보면 크게 10 가지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선진국과 개도국의 '파워슈프트'를 세계무역구조 변화의 가장 큰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세계수출에서 차지하는 개도국 비중이 2000년 25.1%에서 2012년 41.0%로 증가하며 세계무역 내 영향력이 증대되었다. **둘째, 기존의 세계무역 중심국이었던 북미와 유럽의 영향력이 저하되었다.** 세계 총 교역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북미는 16.4%에서 11.2%로, 유럽은 29.1%에서 24.6%로 감소세를 나타내었다. **셋째, 아시아가 세계무역의 중심으로 부상하였다.** 아시아 개도국으로 해외 직접투자 유입액(FDI inflow)이 증가하면서 아시아 세계 수출입 비중이 2000년 9.5%에서 2012년 17.5%로 크게 증가하였다. **넷째, 중동 및 아프리카가 중요한 세계교역국으로 성장하였다.** 중동 및 아프리카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며, 석유 뿐만 아니라 석유 이외의 영역에서 교역규모 성장을 견인하였다. **다섯째, 무역협정국간의 무역이 증가하고 있다.** 지역무역협정(RTA) 체결의 뚜렷한 증가세에 협정국간의 무역 의존도가 증가해 오고 있다. **여섯째, 서비스무역을 견조하게 성장하였다.** 세계 총 서비스수출액은 연평균 10.1%로 증가하였고, 서비스무역의 세계무역 기여도가 상품무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일곱째, 산업재 교역량이 자본재를 추월하였다.** 글로벌 공급사슬이 확산됨에 따라 부품, 소모품 등의 산업재의 교역규모가 성장하였다. **여덟째, 무역품목이 다변화되었다.** 승용차, 원유 등의 20대 주요 무역품목들은 2000년에 세계 교역액의 46.2%를 차지하였지만, 수출입 품목이 다양화 되면서 2011년 37.9%로 하락하였다. **아홉째, 최대 무역품목이 원유에서 정제유류제품으로 변화하였다.** 석유화학산업의 확대로 원유의 무역비중은 감소하고, 정제유류제품의 비중이 급증하였다. **열째, 신흥국 무역품목이 고부가가치화 되었다.** 신흥국들은 고부가가치 지식기술집약산업을 바탕으로 서비스무역을 확대해왔고, 하이테크제품의 상품무역 비중도 선진국을 추월하였다.

■ 한국의 대응 과제

먼저, 수출 대상지역을 신흥국으로 다변화해야 하고, 주변국과의 적극적인 FTA 협상을 추진하여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품목별 무역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산업재 및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식집약서비스, 첨단기술 등의 서비스무역을 진흥할 필요가 있다.

2000년 이후 세계교역 추이

세계교역 추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교역액 2000년 16조 → 2011년 45조 달러, 연평균증가율 9.8% - 최대교역국 2000년 미국(12.1%) → 2011년 중국(10.7%)
무역 성장세 둔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무역 구조의 변화와 최근 교역규모 성장세 둔화세 · 세계교역규모는 2000년 이후 견조하게 성장하였으나, 최근 증가율이 둔화되었고, 향후에도 둔화세가 지속될 전망

세계무역구조 변화의 10대 특징

지역별 세계무역의 파워 쉬프트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선진국과 개도국의 '파워쉬프트' ② 북미, 유럽의 세계무역 영향력 저하 ③ 아시아, 세계무역의 중심으로 부상 ④ 중동 및 아프리카의 성장 ⑤ 무역협정국간의 무역 증가
품목별 무역구조 변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⑥ (교역유형별) 서비스무역의 견조한 성장 ⑦ (품목성질별) 산업재 교역량이 자본재 추월 ⑧ (무역품목별) 무역품목의 다변화 ⑨ 최대 무역품목이 원유에서 정제유류제품으로 변화 ⑩ 신흥국 무역품목의 고부가가치화

한국의 대응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 수출 대상지역으로 신흥국으로의 다변화 지속 추진 - (통상정책) 주변국과의 적극적인 FTA 협상 추진 필요 - (품목별) 산업재 및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식집약서비스, 첨단기술 등의 서비스무역 진흥

1. 2000년 이후 세계교역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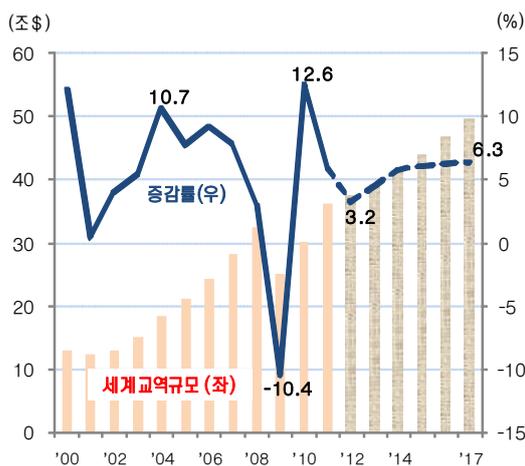
○ 세계교역은 2000년에 들어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으나, 2010년 이후 교역 규모 증가율이 다시 하락하며 둔화됨

- (추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해 2009년 -10.4%의 세계 교역 증가율을 보였지만, 2010년 기저효과가 나타나며 12.5%로 회복된 이후 2011년 5.8%로 하락
- (전망) 세계교역규모는 2000년 15.9조 달러에서 2011년 44.6조 달러로 견조하게 성장하였으나, 최근 증가율이 둔화되었고, 향후에도 둔화세가 지속될 우려

○ 세계 최대교역국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변화

- 2000년 미국이 세계교역규모의 12.1%를 차지하며 최대 무역강국으로서 자리를 지켰지만, 2011년 중국이 영향력을 발휘하며 세계무역 1위로 부상
- 2000년 세계교역액의 3.9%를 차지하며 7위에 위치하던 중국이 2011년 10.7%를 차지하며 최대교역국으로 부상

<세계교역규모 및 증감률 추이>



자료 : IMF
주 : 2012년 이후는 IMF 전망치임

<2000-2011 세계교역규모 순위 변화>

순 위	2000		2011	
	국가	비중(%)	국가	비중(%)
1	미국	12.1	중국	10.7
2	독일	8.6	미국	8.3
3	일본	7.5	독일	7.8
4	프랑스	5.1	일본	4.6
5	영국	4.4	네덜란드	3.7
6	캐나다	4.3	프랑스	3.3
7	중국	3.9	한국	3.2
8	이탈리아	3.7	러시아	2.8
9	네덜란드	3.6	이탈리아	2.9
10	홍콩	3.2	캐나다	2.5
11	벨기에	2.9	벨기에	2.6
12	한국	2.7	영국	2.6

자료 : WTO
주 : 수출액 기준임

○ 세계 수출과 수입의 특성들이 유사한 경향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수출액을 기준으로 세계교역규모 및 무역구조 변화의 특징들을 설명함

2. 세계무역구조 변화의 10대 특징

① 선진국과 개도국의 '파워쉬프트(Power shif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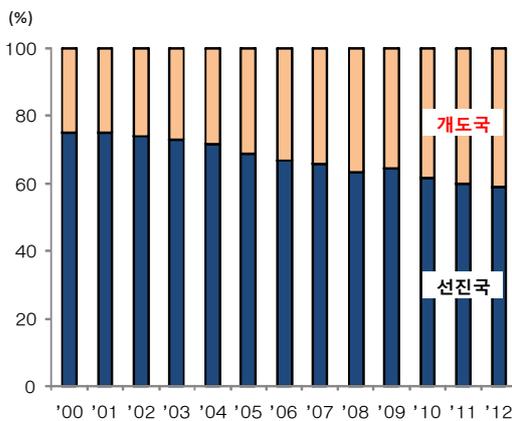
○ 세계수출에서 차지하는 개도국 비중이 2000년 25.1%에서 2012년 41.0%로 변화하며 세계무역 내 영향력 증대

- 반면, 선진국은 같은 기간 74.9%에서 59.0%로 하락
- 개도국은 선진국 보다 높은 수출 증가율을 보이며 선진국을 추격
 - 개도국들은 저임금 노동집약산업을 중심으로 가격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고, 선진국들에게 부품 등의 산업재를 공급하면서 무역이 크게 성장

○ GDP(PPP기준)는 2012년 개도국이 선진국을 역전할 것으로 전망되고, 산업생산의 경우 선진국은 정체된 반면, 개도국은 높은 성장속도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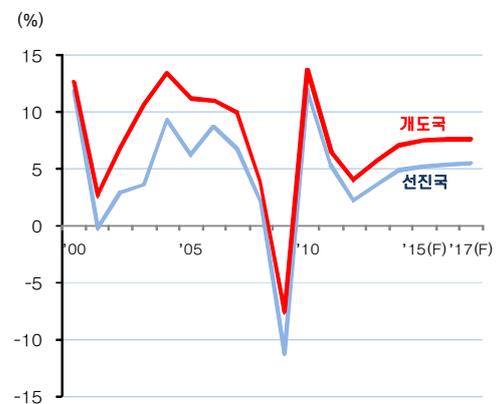
- 산업생산지수(Industrial Production Index)는 개도국이 활발한 투자와 생산활동으로 2012년 7월 240.8을 달성한 반면, 선진국은 101.2로 정체됨
 - 개도국은 저부가가치 산업 뿐 아니라 하이테크제품 및 지식기술집약산업(Knowledge- and Technology-Intensive Industries)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상품 및 서비스 수출이 증대되면서 세계무역 내 영향력이 가속화 되고 있음

<선진국-개도국 수출 비중 추이>



자료 : 한국무역협회
주 : 2012년은 1~5월 누적치임

<선진국-개도국 수출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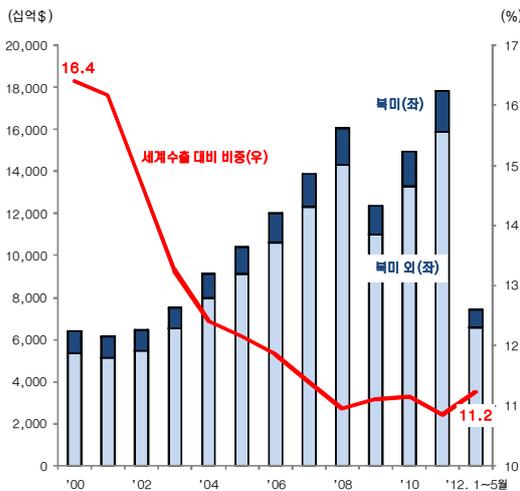
자료 : IMF
주 : 2012년 이후는 IMF 전망치임

② 북미, 유럽의 세계무역 영향력 저하

○ 세계무역 중심국 북미의 퇴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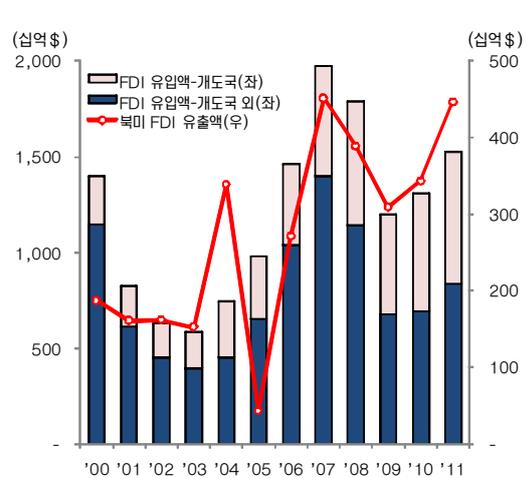
- 세계 총 수출액에서 북미지역의 비중은 이후 감소세 지속
 - 2000년 미국과 캐나다는 세계 총 수출액의 16.4%를 차지하였으나,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2년에는 11.2%까지 하락
 - 미국의 세계 총 수출액 대비 비중은 2000년 12.1%에서 2012년 8.6%로 감소하여 북미 수출액 감소세에 큰 영향을 미침
 - 캐나다도 2000년 4.3%에서 2012년 2.6%로 감소세 지속
- 원자재, 부품 등의 글로벌 아웃소싱(Global outsourcing)이 확대되고, 노동력 등 원가 절감을 위한 글로벌 생산시스템(Global production system)이 확산
 - 2000년 IBM과 GM을 시작으로 글로벌 아웃소싱 붐이 거세게 일어난 미국의 경우, 상당수 기업들이 노동집약산업의 생산기지뿐만 아니라 정보기술 지원 등 사무 분야도 인도, 중국 등의 개도국으로 이동
 - 북미의 해외직접투자 유출액(FDI outflow)이 2000년 1,873억달러에서 2011년 4,459억달러로 증가
 - 개도국으로 글로벌 생산시스템이 확산됨에 따라 세계 해외직접투자 유입액(FDI inflow)중 개도국 비중이 2000년 18.2%에서 2011년 44.9%로 확대

<북미의 수출액과 비중 추이>



자료 : 한국무역협회
주 : 2012년은 1~5월 누적치임

<북미 해외직접투자 유출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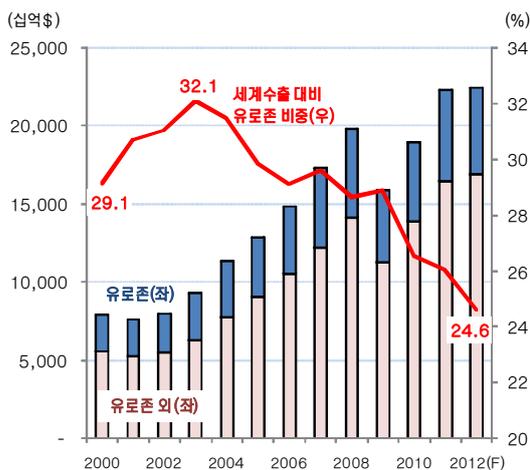


자료 : UNCTAD Stat

○ 유럽, 세계무역의 영향력 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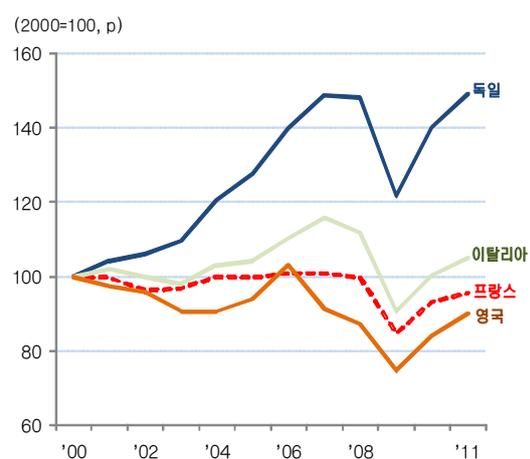
- 세계 총 수출액에서 유럽의 비중은 2003년 이후 감소세 지속
 - 유로존의 수출액이 세계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29.1%에서 2003년 32.1%로 증가하였으나, 이후 하락하여 2012년 24.6%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유로존의 수출액은 2000년 2조 3천억달러에서 2008년 5조 7천억달러로 완만히 성장하다가 금융위기 이후 하락하여 2012년 5조 6천억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유로존의 수출 증감률은 2012년 2.5%로 세계 평균 3.2%에 미치지 못하고, 앞으로도 장기화될 전망
 - 독일을 제외하면,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등 주요국 수출지수도 부진
- 유로존의 세계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8.3%에서 2012년 13.7%로 하락하며, 2017년에는 11.9%를 기록할 전망
 - 2012년 이후에도 GDP 대비 국가부채 규모는 2012년 93.6%로 전년대비 5.6%p 증가하고 2013년에도 1.3%p 증가할 것으로, 국가부채의 위협과 투자 및 고용 등의 성장 동력이 미약

<유로존의 수출액과 비중 추이>



자료 : IMF
 주 : 2012년은 IMF 전망치

<유럽 주요국의 수출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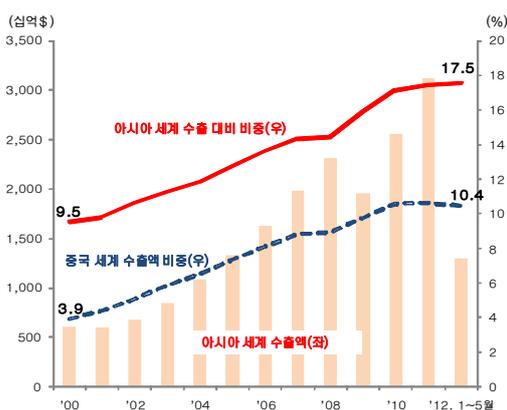


자료 : EuroStat

③ 아시아, 세계무역의 중심으로 부상

- 아시아 세계 수출입 비중은 2000년 9.5%에서 2012년 17.5%로 8.0%p 증가
 - 상품무역의 경우, 중국의 교역규모 순위가 2000년 7위에서 2011년 1위로 성장하였고, 한국은 세계 12위에서 7위로 도약
 - 서비스무역에서는 2000~2011년 동안 중국은 12위→4위, 인도는 22위→6위, 싱가포르는 15위→10위로 크게 부상
- 아시아 개도국¹⁾ 및 아시아신흥공업국(NIE)²⁾으로 유입되는 FDI는 같은 기간 연평균 각각 9.2%, 5.6%로 증가하여, 세계 FDI유입액의 40% 이상 차지
 - 선진국으로부터 해외직접투자가 유입되고, 생산기지가 확장되면서 가격경쟁력 있는 제품 및 서비스를 바탕으로 세계교역의 영향력 증대
- 중국의 세계교역비중은 2000년 3.9%에서 2012년 10.4%로 증가해 미국 역전
 - 중국의 세계교역 기여도(Contribution to world trade volume)는 2000년 0.7p에서 2013년 1.0p으로 증가하는 반면, 미국은 2000년 1.6p에서 2013년 0.8p로 감소하여 역전될 것으로 전망(OECD)
 - 2000년대 초반 의류, 완구, 신발류 등 노동집약적 품목의 수출 비중이 높았지만, 최근에는 컴퓨터, 텔레비전, 등 노동·기술 혼합형 수출 비중이 확대

<아시아의 세계수출 추이>



자료 : 한국무역협회
주 : 2012년은 1~5월 누적치임

<아시아 권역별 FDI 유입액 추이>

(단위 : %, 십억달러)

	2000	2005	2011	00~11 연평균 증가율
아시아개도국	10.6	22.3	27.8	9.2
동아시아	8.3	11.8	14.4	5.1
남아시아	0.3	1.5	2.6	19.9
동남아시아	1.6	4.4	7.6	15.1
서아시아	0.3	4.5	3.2	25.8
NIE	6.9	8.4	12.6	5.6
세계	1,401	981	1,524	0.8

자료 : UNCTAD St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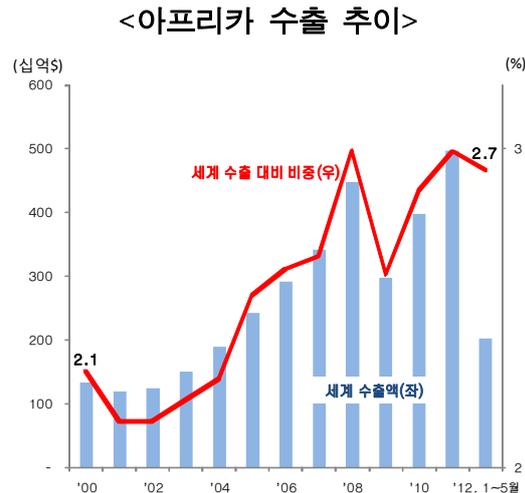
1) 아시아 개도국(Developing Asia)은 총 27개의 국가로 구성되어 있음: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부탄, 부룬나이, 캄보디아, 중국, 피지, 인도, 인도네시아, 키리바시, 라오스, 말레이시아, 몰디브, 미얀마, 네팔,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솔로몬아일랜드, 스리랑카, 타라와, 태국, 동티모르, 통가, 투발루, 바누아투, 베트남.
2) 아시아신흥공업국(NIE; Newly Industrialized Asian Economies)은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을 가리킴.

④ 중동 및 아프리카의 성장

- 중동과 아프리카의 세계 수출 및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증가
- 중동의 세계 수출 비중은 2000년 3.7%에서 2012년 7.0%로, 아프리카는 2.1%에서 2.7%로 증가세를 나타냄



자료 : 한국무역협회
주 : 2012년은 1~5월 누적치임



자료 : 한국무역협회
주 : 2012년은 1~5월 누적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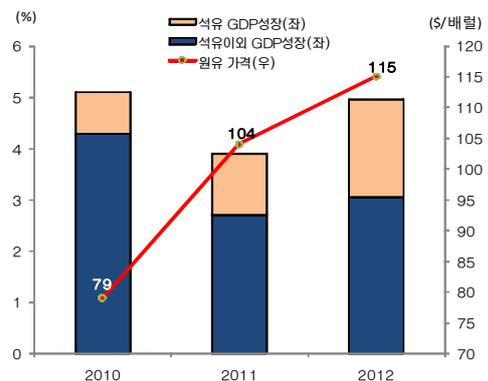
- MENAP³⁾와 MENA⁴⁾의 2012년 경제성장률 4.2%로 견조한 성장세 유지
- 원유가격이 크게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2010~2012년 동안 MENAP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견인한 것은 석유가 아닌 석유 이외의 영역임

<MENAP 및 MENA 경제성장률 추이> (%)

	MENAP			MENA
		석유 수입국	석유 수출국	
'00-'06 평균	5.3	4.7	5.6	5.3
2007	5.8	6.5	5.4	5.6
2008	4.5	5.5	4.1	4.7
2009	2.7	4.2	2.0	2.7
2010	4.8	4.3	5.0	4.9
2011	3.4	2.2	4.0	3.5
2012(F)	4.2	2.7	4.8	4.2

자료 : IMF(2012.4), Regional Economic Outlook

<MENAP 경제성장률과 원유가격 추이>



자료 : IMF(2012.4), Regional Economic Outlook

3) MENAP(Middle East and North Africa, Afghanistan and Pakistan)은 알제리아, 바레인,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리비아,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UAE, 예멘과 같은 석유수출국들과, 아프가니스탄, 지부티, 이집트, 요르단, 레바논, 모리타니, 모로코, 파키스탄, 시리아, 튀니지와 같은 석유수입국들로 구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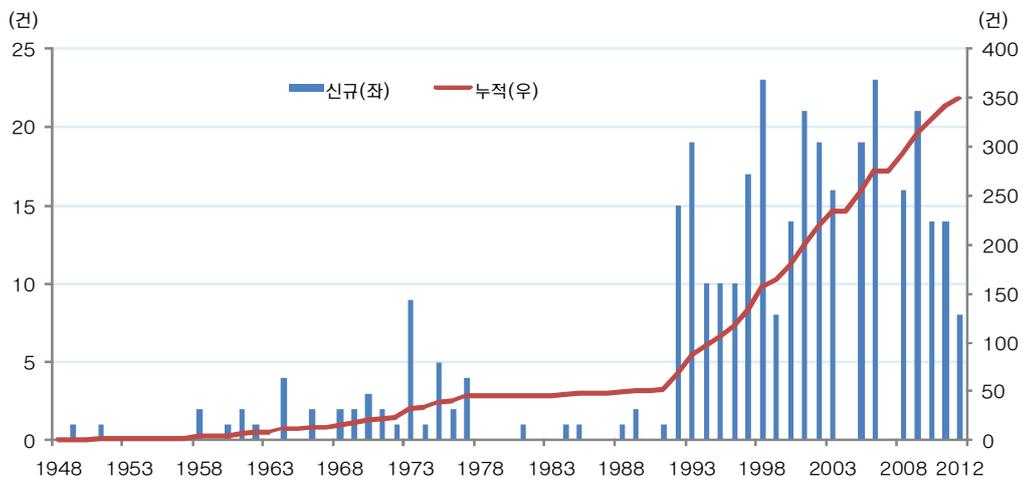
4) MENA(Middle East and North Africa)는 MENAP에서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을 제외한 국가들임.

⑤ 무역협정국간의 무역 증가

○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 체결의 뚜렷한 증가세

- 경제적 이해관계가 부합하는 국가 간의 무역자유화 협상 또는 경제블록 추진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부터 소외될 경우 받게 될 피해를 우려한 국가들이 RTA 체결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지역무역협정 장기추이 >



자료 : WTO, 2012년 10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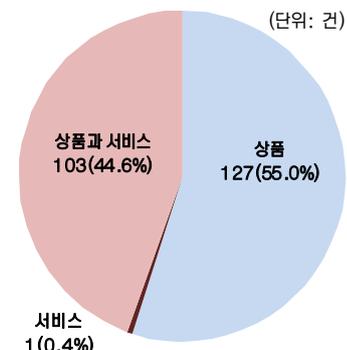
- 지역무역협정은 총 349개로, FTA가 203개로 가장 많고, EIA(경제통합협정) 107개, 관세동맹(CU) 34개, 개도국간 특혜협정(PSA) 15개로 분포
- 범위별로는 상품 협정이 55.0%, 상품과 서비스 협정이 44.6%, 서비스 협정이 0.4%를 구성

< 지역무역협정 유형별 현황 >

	권능 조항	GATS 제5조	GATT 제24조	총 합
관세동맹(CU) (Customs Union)	9		15	34
경제통합협정(EIA) (Economic Integration Agreement)		107		107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12		191	203
개도국간 특혜협정(PSA) (Partial Scope Agreement)	15			15
총합	36	107	206	349

자료 : WTO, 2012년 10월 기준

< 지역무역협정 범위별 현황 >



자료 : WTO, 2012년 10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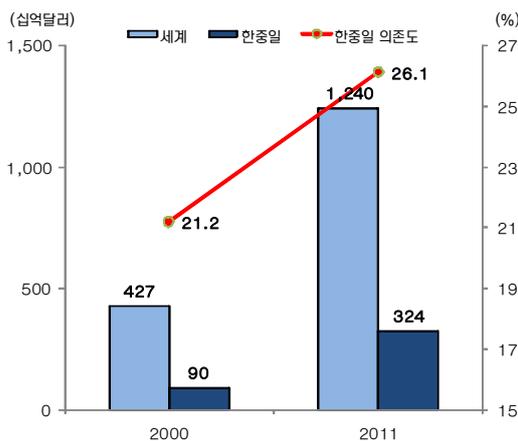
○ ASEAN⁵⁾은 FTA 협약국인 한국, 중국, 일본에 대한 무역의존도 증가

- ASEAN의 한중일 수출의존도 2000년 21.2%에서 2011년 26.1%로 증가하였고, 수입의존도 역시 같은 기간 29.4%에서 30.6%로 증가
- ASEAN은 한국과 상품(2007.6), 서비스(2009.5) 및 투자(2009.9)에 걸쳐 FTA가 발효되었고, 중국(2005.7) 및 일본(2008.12)과도 협약을 맺어오고 있음

○ 2000년 이후 NAFTA⁶⁾는 대외국과의 경제협력으로 역내 무역의존도 하락

- NAFTA 협정을 통해 미국의 자본·기술, 캐나다의 자원, 멕시코의 노동력에 대한 역내 무역이 크게 증가하여 역내 수출의존도가 1990년 41.3%에서 2000년 55.7%로 상승
- 1989년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맺은 자유무역협정(CUFTA)을 기초로 미국과 멕시코 간의 협정이 구상되기 시작하였고, 1994년 NAFTA가 공식 발효되어 5~15년에 걸쳐 역내 관세가 단계적으로 감축되어 옴
- 2000년 이후 NAFTA는 대외국과의 적극적 경제협력으로 역내 수출의존도는 2011년 48.3%로 하락
- NAFTA 국가들은 2000년 이후, 칠레, 페루, EU 등과 적극적인 경제협력을 구축해 옴

<2000-2011년 ASEAN의 수출 비교>



자료 : IMF

<NAFTA의 역내·세계 수출 추이>

(단위: 십억달러)

		1990	1995	2000	2005	2011
NAFTA 역내	미국	111	172	283	331	478
	캐나다	96	154	242	305	339
	멕시코	19	68	151	188	285
	합계	226	394	676	824	1,103
대세계	미국	393	584	772	904	1,481
	캐나다	126	190	275	361	452
	멕시코	27	80	166	214	350
	합계	547	853	1,214	1,479	2,283

자료 : IMF 자료를 이용, 현대경제연구원 계산

5)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은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10개국으로 구성.
 6)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북미자유무역협정) 미국, 캐나다, 멕시코 북미 3국간에 상품, 서비스, 투자 및 지적재산권에 관하여 자유무역을 시행하기 위해 협정한 경제블록.

⑥ 서비스무역의 견조한 성장

○ 서비스무역(Service trade)이 상품무역(Merchandise trade)과 함께 견조한 성장세

- 세계 총 서비스수출액은 2000년 1.4조 달러에서 2011년 4.2조 달러로 증가하였고, 상품수출액은 6.4조 달러에서 18.2조 달러로 증가
- 서비스무역은 2000~2011년 동안 연평균 10.1%로 증가하였고, 상품무역은 10.0%로 증가
- 총 무역에서 서비스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8.4%에서 2011년 18.6%로 0.2%p 증가
- VAX(Value-Added Content of Trade) 비율⁷⁾은 서비스업이 1.46%, 제조업이 0.44%로, 서비스업이 세계교역의 부가가치 기여도가 높음
- 무역구조가 점진적으로 개선되면서 컴퓨터와 보험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무역이 빠르게 성장하였으며, 운송·여행·건축 등 전통적 서비스무역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발전하였음
- 특히, 많은 개도국에서 서비스업은 제조업보다 GDP 성장, 고용 창출 등에 더 많은 기여

<교역유형별 수출액 추이>



자료 : WTO

<주요국 VAX 비율>

	VAX 비율 (%)		
	전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일본	0.85	0.53	3.93
한국	0.63	0.46	2.62
중국	0.59	0.4	1.97
미국	0.77	0.49	1.58
캐나다	0.7	0.44	1.97
멕시코	0.52	0.41	1.27
독일	0.74	0.47	2.52
영국	0.79	0.51	1.24
프랑스	0.73	0.47	1.79
전체국가 평균 (94개국)	0.73	0.44	1.46

자료 : Johnson and Noguera(2011), "The Value-Added Content of Tra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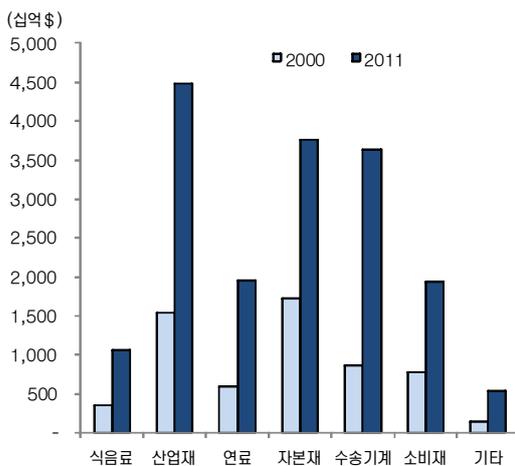
7) VAX 비율은 산업별·국가별 세계무역에서 기여하는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부가가치 수출/총 수출'의 비율을 계산하는데, 분자는 수출에 기여하는 국내 부가가치를, 분모는 총 수출액을 각각 의미함.

⑦ 산업재 교역량이 자본재 추월

○ 산업재의 교역비중이 크게 증가하여 자본재 교역을 추월

- 산업재(Industrial supplies)의 세계수출액이 2000년 1조 5,413억달러에서 2011년 4조 4,863억달러로 증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이 됨
 - 지역무역협정(RTA) 확산이 가속화되고, 완제품과 부품의 차별관세 적용
 - 글로벌 공급사슬(Global supply chain)이 확산됨에 따라 부품, 소모품 등의 산업재를 바탕으로 한 무역규모가 성장
- 자본재(Capital goods)⁸⁾는 2000년 세계수출액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이었으나, 비중이 점차 감소하여 2위 품목으로 하락
 - 자본재 수출액은 2000년~2011년간 연평균 7.3%로 증가하여, 가장 낮은 연평균 증가율을 기록
- 수송기계(Transport equipment)는 2000년 8,703억달러에서 2011년 36,318억 달러로 연평균 13.9% 증가
 - 세계 수출액에서 수송기계가 차지하는 비중도 14.5%에서 22.8%로 증가
 - RTA의 확산으로 승용차 수출의 관세가 완화되었고, 신흥 개도국을 중심으로 중산층이 확대됨에 따라 승용차 수요가 확대

<'00-'11년 품목성질별 수출액 비교>



자료 : UN Comtrade Database
주 : 품목분류는 BEC 코드 기준

<품목성질별 수출액 비중 추이>

	2000	2005	2011	00-'11 연평균 증가율 (%)
식음료	6.0	6.0	6.6	10.3
산업재	25.6	26.4	28.2	10.2
연료	10.0	12.4	12.3	11.3
자본재	28.7	25.7	23.6	7.3
수송기계	14.5	14.0	22.8	13.9
소비재	12.9	13.3	12.2	8.7
기타	2.3	2.4	3.4	12.9
총합	100	100	100	9.2

자료 : UN Comtrade Database
주 : 품목분류는 BEC 코드 기준

8) 생산기계, 장치, 공장설비 등의 생산수단을 일컫는 것으로, 투자재(Investment goods)와도 혼용됨

⑧ 무역품목의 다변화

○ 승용차, 원유 등의 20대 주요 무역품목들은 2000년에 세계 무역액의 46.2%를 차지하며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지만, 수출입 품목이 더욱 다양화 되면서 그 비중이 점차 감소하였고, 2011년 37.9%로 하락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제유류제품, 의약품은 각각 연평균 16.3%, 15.1%로 성장하며 무역품목의 구조적 변화를 야기하고 있음
- 글로벌 생산기지 확대로 다양한 산업재의 교역이 증가하였고, 산유국과 개도국의 석유화학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정제유류제품 등의 교역규모가 성장
- 신흥국을 중심으로 중산층이 확대되면서 소득 및 소비 수준이 성장하였고,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소비재 무역품목의 변화가 발생

<20대 주요품목의 교역 추이>

(단위: 백만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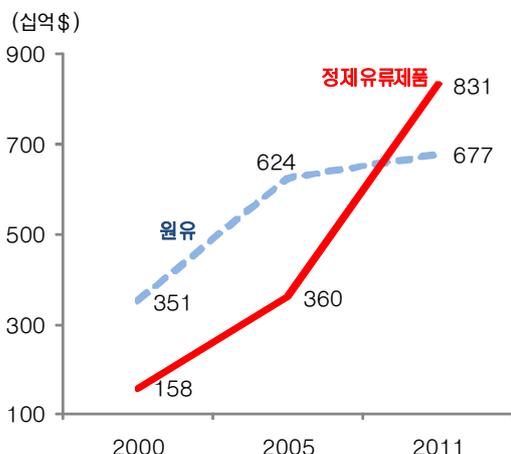
주요품목	2000		2005		2011		'00-'11 연평균증가율
	수출액	비중	수출액	비중	수출액	비중	
승용차(원제품)	303,629	5.0	486,397	4.9	596,358	3.7	6.3
원유	351,302	5.8	624,017	6.3	677,137	4.3	6.1
광전관	311,066	5.2	365,637	3.7	545,949	3.4	5.2
자동차부품	142,466	2.4	234,190	2.4	311,909	2.0	7.4
컴퓨터	198,852	3.3	271,730	2.8	339,894	2.1	5.0
통신장비 및 부품	224,777	3.7	354,831	3.6	496,354	3.1	7.5
미분류 특수취급품	229,777	3.8	341,616	3.5	525,901	3.3	7.8
정제유류제품	157,700	2.6	360,348	3.7	831,004	5.2	16.3
사무기계 및 부품	165,663	2.8	201,478	2.0	193,479	1.2	1.4
항공기	100,459	1.7	128,447	1.3	145,935	0.9	3.5
전기기계	103,267	1.7	147,963	1.5	215,680	1.4	6.9
플라스틱 1차 제품	1,867	0.0	3,658	0.0	5,301	0.0	10.0
의약품	31,451	0.5	66,121	0.7	147,181	0.9	15.1
종이 및 판지	70,514	1.2	95,763	1.0	115,536	0.7	4.6
전기회로의 개폐용기기	96,146	1.6	142,409	1.4	225,050	1.4	8.0
내연기관 및 부품	69,193	1.1	113,172	1.1	155,163	1.0	7.6
특수산업용 기계	74,321	1.2	97,850	1.0	182,948	1.1	8.5
기계류 부품(비전기식)	15,584	0.3	21,825	0.2	28,978	0.2	5.8
측정·제어기계	73,193	1.2	110,902	1.1	175,095	1.1	8.3
화물차 등 특수차량	56,966	0.9	89,712	0.9	117,561	0.7	6.8
20대 주요품목 합계(A)	2,778,193		4,258,066		6,032,413		7.3
세계 교역액(B)	6,016,799		9,845,490		15,915,069		9.2
세계교역내 비중(A/B)	46.2		43.2		37.9		-

자료 : UN Comtrade Database, 주 : 1) 품목분류는 SITC 코드(Revision3) 기준, 2) 수출액 기준

⑨ 최대 무역품목이 원유에서 정제유류제품으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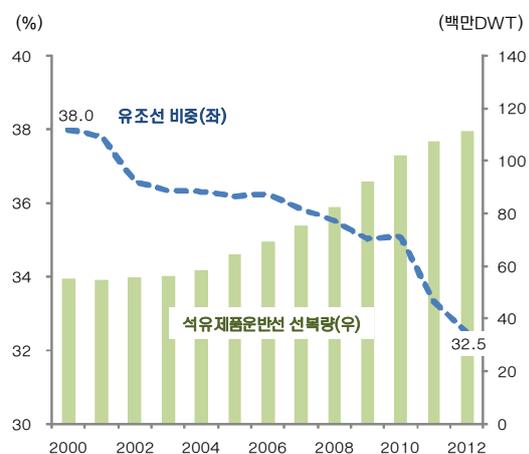
- 석유화학산업의 확대로 원유(Crude oil)의 교역비중은 감소하고, 정제유류제품(Petroleum products)의 비중이 급증
 - 2000년 세계교역액의 5.8%를 차지하며 1위 품목이었던 원유는 그 비중이 점차 감소하여 2011년 4.3%로 2위로 밀려난 반면, 정제 유류 제품은 2000년 2.6%로 8위 품목에서, 2005년 4위, 2011년 1위로 급부상하며 세계교역액의 5.2%를 기록
 - 정제 유류 제품의 연평균 증가율이 16.3%로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임
- 원유를 정제하여 다양한 유류와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석유화학산업은 현대 경제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연료와 소재를 공급하기 때문에 중국을 비롯한 수많은 개발도상국가에서 산업화의 중요한 축으로 육성되고 있음
 - 산유국들도 단순히 원유를 판매하는 것에서 탈피해 원유를 직접 정제·가공하여 부가가치를 높인 뒤 가공된 유류와 화학제품을 판매하는 방식을 선호
 - 따라서, 중동 등에서는 최근 석유화학플랜트 건설이 활발하게 이루어짐
- 세계선복량 중 벌크선 선복량 비중이 크게 증가한데 반해, 원유를 운송하는 유조선(Crude oil tanker)의 비중은 2000년 38.0%에서 2011년 32.5%로 감소
 - 정제 유류 제품을 운반하는 석유제품운반선(Product tanker)의 비중은 동기간 6.9%에서 7.3%로 증가

<원유와 정제유류제품 세계교역 추이>



자료 : UN Comtrade Database

<유조선과 석유제품운반선 선복량 추이>



자료 : Clarkson Shipping Review Database

⑩ 신흥국 무역품목의 고부가가치화

○ (서비스무역) 중국, 인도, 싱가포르 등의 신흥국들은 고부가가치 서비스인 지식기술집약산업(Knowledge- and Technology-Intensive Industries)을 바탕으로 서비스무역에서 부상함

- 선진국이 창출한 지식기술집약산업의 총 부가가치는 1995년 6.9조달러에서 2010년 14.6조달러로 연평균 5.1% 성장한 반면, 개도국은 0.8조달러에서 3.6조달러로 10.3% 성장
- 서비스무역에서 중국, 인도, 싱가포르는 2000년 각각 12위(2.1%), 22위(1.2%), 15위(1.9%)에서 2011년 4위(4.4%), 6위(3.6%), 10위(3.0%)로 크게 부상

<1995-2010년 지식기술집약산업 선진국-개도국 비교>

(단위: 십억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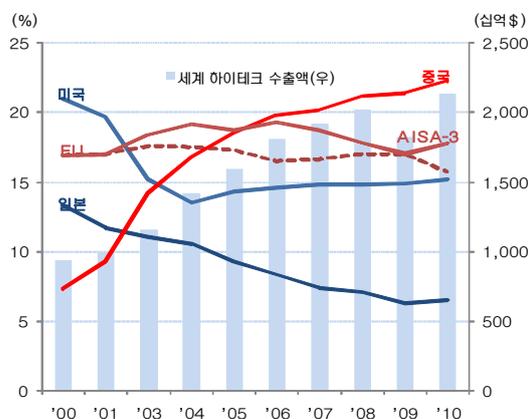
	1995년 총 부가가치				2010년 총 부가가치			
		지식집약서 비스(상업)	지식집약서 비스(공공)	첨단 기술		지식집약서 비스(상업)	지식집약서 비스(공공)	첨단 기술
선진국	6,913	3,896	2,365	652	14,556	8,625	4,906	1,025
개도국	834	528	239	67	3,629	2,276	981	372

자료 : National Science Board(NSB)

○ (상품무역) 중국 및 ASIA-3(한국, 싱가포르, 대만)은 하이테크제품의 수출 비중에서도 주요 선진국을 추월하여, 저부가가치에서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수출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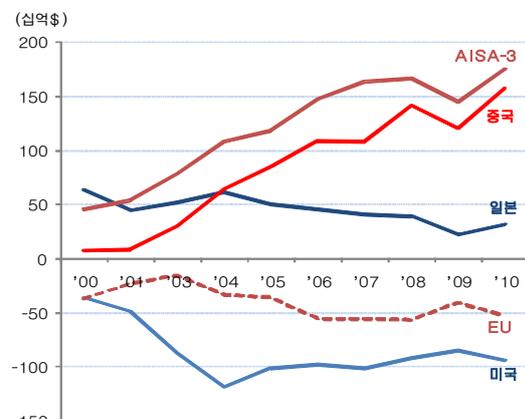
- 중국은 2000년 상품무역순위 7위로 세계수출액의 3.9%를 차지하였으나, 2011년 1위로 10.4%를 기록하였고, 한국은 세계 12위에서 7위로 도약

<세계 하이테크제품 수출비중 추이>



자료 : National Science Board(NSB)

<세계 하이테크제품 무역수지 추이>



자료 : National Science Board(NSB)

3. 한국의 대응 과제

○ (지역별) 수출 대상지역으로 신흥국으로의 다변화 지속 추진

-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의 신흥국이 글로벌 물류시장에서 중요성이 증대될 전망으로 한국 기업들이 시장개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 마련
-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는 신흥국들의 철도, 도로, 항만, 건축 등의 인프라 건설 분야 진출을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상품 및 서비스 무역으로의 확대 유도

○ (통상정책) 주변국과의 적극적인 FTA 추진 필요

- 세계적으로 각 지역간의 경제협력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주변국과의 적극적인 FTA 협상을 추진함으로써 역외 보호무역주의에 대응
- 한국은 수출주도 성장전략(Export-led growth strategy)이 경제정책의 근간이 되고 있고,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세계교역규모 둔화세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Global protectionism)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정책이 필요

○ (품목별) 산업재 및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식집약서비스, 첨단기술 등의 서비스무역 진흥

- 부품 및 원자재 등의 산업재 교역에 최적화된 3자물류(Third party logistics) 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공급사슬의 물류거점기지 확보 지원
- 산유국 및 신흥국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 수주를 지원하고, 국내 조선사들이 유조선 및 석유정제제품 운반선 수요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침 제공
- 의료관광서비스, 문화 콘텐츠, 물류서비스, 법률 서비스, 회계 서비스, 금융 및 정보통신 등의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창출·확대
- 투자 대비 높은 수익을 창출하는 지식기술집약산업에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집중 육성

김광석 선임연구원 (02-2072-6215, gskim@hri.co.kr)

<별첨1> 2009-2010년 통보된 WTO 발효 지역무역협정

지역무역협정	WTO통보일	발효일	통보기준
EU - Côte d'Ivoire	11-Dec-08	01-Jan-09	GATT 제24조
US - Oman	30-Jan-09	01-Jan-09	GATT 제24조, GATS 제5조
China - Singapore	02-Mar-09	01-Jan-09	GATT 제24조, GATS 제5조
Panama - Honduras (Panama - Central America)	16-Dec-09	09-Jan-09	GATT 제24조, GATS 제5조
US - Peru	03-Feb-09	01-Feb-09	GATT 제24조, GATS 제5조
Peru - Chile	29-Nov-11	01-Mar-09	GATT 제24조, GATS 제5조
Australia - Chile	03-Mar-09	06-Mar-09	GATT 제24조, GATS 제5조
EU - Albania	07-Oct-09	01-Apr-09	GATT 제24조, GATS 제5조
ASEAN - Korea, Republic of		01-May-09	
Chile - Colombia	14-Aug-09	08-May-09	GATT 제24조, GATS 제5조
MERCOSUR - India	23-Feb-10	01-Jun-09	권능조항
EFTA - Canada	04-Aug-09	01-Jul-09	GATT 제24조
Peru - Singapore	30-Jul-09	01-Aug-09	GATT 제24조, GATS 제5조
Canada - Peru	31-Jul-09	01-Aug-09	GATT 제24조, GATS 제5조
Japan-Switzerland	01-Sep-09	01-Sep-09	GATT 제24조, GATS 제5조
EU - Cameroon	24-Sep-09	01-Oct-09	GATT 제24조
Japan-VietNam	01-Oct-09	01-Oct-09	GATT 제24조, GATS 제5조
Pakistan - China	20-May-10	10-Oct-09	GATT 제24조, GATS 제5조
India - Nepal	02-Aug-10	27-Oct-09	권능조항
Colombia - Northern Triangle (El Salvador, Guatemala, Honduras)	31-Aug-12	12-Nov-09	GATT 제24조, GATS 제5조
EU - Papua New Guinea / Fiji	18-Oct-11	20-Dec-09	GATT 제24조
ASEAN - Australia - New Zealand	08-Apr-10	01-Jan-10	GATT 제24조, GATS 제5조
ASEAN - India	19-Aug-10	01-Jan-10	권능조항
Korea, Republic of - India		01-Jan-10	
EU - Serbia	31-May-10	01-Feb-10	GATT 제24조
Peru - China	03-Mar-10	01-Mar-10	GATT 제24조, GATS 제5조
Turkey - Montenegro	12-Mar-10	01-Mar-10	GATT 제24조
Chile - Guatemala (Chile - Central America)	30-Mar-12	23-Mar-10	GATT 제24조, GATS 제5조
EU - Montenegro	18-Jun-10	01-May-10	GATT 제24조, GATS 제5조
East African Community (EAC)	01-Aug-12	01-Jul-10	권능조항, GATS Art. V
Chile - China	18-Nov-10	01-Aug-10	GATT 제24조, GATS 제5조
New Zealand - Malaysia	07-Feb-12	01-Aug-10	GATT 제24조, GATS 제5조
Turkey - Serbia	10-Aug-10	01-Sep-10	GATT 제24조
EFTA - Serbia	24-Nov-10	01-Oct-10	GATT 제24조
EFTA - Albania	07-Feb-11	01-Nov-10	GATT 제24조

자료 : WTO, 2012년 10월 기준

<별첨> 2011-2012년 통보된 WTO 발효 지역무역협정

지역무역협정	WTO통보일	발효일	통보기준
Hong Kong, China - New Zealand	03-Jan-11	01-Jan-11	GATT 제24조, GATS 제5조
Turkey - Chile	25-Feb-11	01-Mar-11	GATT 제24조
Turkey - Jordan	07-Mar-11	01-Mar-11	GATT 제24조
EFTA - Peru	30-Jun-11	01-Jul-11	GATT 제24조
EU-Korea, Republic of	07-Jul-11	01-Jul-11	GATT 제24조, GATS 제5조
India - Malaysia	06-Sep-11	01-Jul-11	권능조항, GATS 제5조
EFTA - Colombia	14-Sep-11	01-Jul-11	GATT 제24조, GATS 제5조
Peru - Korea, Republic of	09-Aug-11	01-Aug-11	GATT 제24조, GATS 제5조
India - Japan	14-Sep-11	01-Aug-11	GATT 제24조, GATS 제5조
China-Costa Rica	27-Feb-12	01-Aug-11	GATT 제24조, GATS 제5조
Canada - Colombia	07-Oct-11	15-Aug-11	GATT 제24조, GATS 제5조
Peru - Mexico	22-Feb-12	01-Feb-12	GATT 제24조, GATS 제5조
Japan - Peru	24-Feb-12	01-Mar-12	GATT 제24조, GATS 제5조
Korea, Republic of - US	15-Mar-12	15-Mar-12	GATT 제24조, GATS 제5조
Panama - Peru	23-Apr-12	01-May-12	GATT 제24조, GATS 제5조
EU - Eastern and Southern Africa States Interim EPA	09-Feb-12	14-May-12	GATT 제24조
US - Colombia	08-May-12	15-May-12	GATT 제24조, GATS 제5조
EFTA - Ukraine	18-Jun-12	01-Jun-12	GATT 제24조, GATS 제5조
EFTA - Hong Kong, China	27-Sep-12	01-Oct-12	GATT 제24조, GATS 제5조

자료 : WTO, 2012년 10월 기준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주요국 성장률 추이

구분	2010년					2011					2012년 연간(E)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미국	3.0	3.9	3.7	2.5	2.3	1.7	0.4	1.3	1.8	3.0	2.2
유로 지역	1.9	0.4	1.0	0.4	0.3	1.4	0.8	0.2	0.1	-0.3	-0.4
일본	4.4	6.1	5.2	2.3	-0.6	-0.9	-6.8	-1.5	7.0	-2.3	2.2
중국	10.3	11.9	11.1	10.6	9.8	9.2	9.7	9.5	9.1	8.9	7.8

주: 1) 2012년 전망치는 IMF 2012년 10월 기준임.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EU는 전기대비, 중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10년말	2011년		2012년			
		6월말	12월말	11월 23일	11월 29일	전주비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3.30	3.16	1.88	1.69	1.62	-0.07%p
	엔/달러	81.19	80.66	77.66	82.47	82.09	-0.38¥
	달러/유로	1.3350	1.4492	1.2955	1.2881	1.2949	0.0068\$
	다우존스지수(p)	11,578	12,414	12,218	13,010	13,022	12p
	닛케이지수(p)	10,229	9,817	8,455	9,367	9,401	34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3.38	3.76	3.34	2.84	2.83	-0.01%p
	원/달러(원)	1,134.8	1,067.7	1,151.8	1,086.1	1,084.1	-2.0원
	코스피지수(p)	2,051.0	2,100.7	1,825.7	1,911.3	1,934.9	23.6p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10년말	2011년		2012년			
		6월말	12월말	11월 23일	11월 29일	전주비	
국제 유가	WTI	91.40	95.18	99.22	87.08	87.97	0.89\$
	Dubai	88.80	106.75	104.89	108.73	107.24	-1.49\$
CRB선물지수	332.80	338.05	305.30	299.07	299.35	0.28p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

□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 분		2011			2012(E)	2013(E)	
		상반기	하반기	연간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	3.8	3.4	3.6	2.5	3.5	
	민간소비 (%)	2.9	1.6	2.3	1.3	2.9	
	건설투자 (%)	-7.1	-3.0	-5.0	-0.2	2.5	
	설비투자 (%)	8.9	-1.1	3.7	1.6	5.6	
대외거래	경상수지 (억 달러)	81	184	265	310	260	
	무역수지 (억 달러)	153	155	308	263	268	
	수출 (억 달러)		2,736	2,816	5,552	5,488	6,026
		(증가율, %)	23.6	14.9	19.0	-1.2	9.8
	수입 (억 달러)		2,582	2,662	5,244	5,225	5,758
		(증가율, %)	26.7	20.2	23.3	-0.4	10.2
소비자물가 (평균, %)		3.9	4.1	4.0	2.4	2.6	
실업률 (평균, %)		3.8	3.0	3.4	3.3	3.3	
원/달러 환율 (평균, 원)		1,102	1,114	1,108	1,125	1,095	

주: E(Expectation)는 전망치